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보 고 서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전체 회합 주최:청두시 공동주최:나라현
분과회 주최:덴리시 공동주최:나라현

편집·발행 나라현

이 보고서는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의 조성사업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一般財団法人
自治体国際化協会

전체 회합 (중국·쓰촨성 청두시):2017.5.10(수)~11(목)
분과회 (일본·나라현 덴리시):2017.10.31(화)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보고서

【 목 차 】

프로그램	2
인사말.....	3
참가지방정부 단장명부	6
개요	
기조강연	10
토의	
테마1 「관광업 진흥의 정책혁신」	13
테마2 「산업과 인재의 정책혁신」	22
테마3 「도시와 농촌건설의 정책 혁신」	26
분과회	
분과회 보고	
‘육아 분과회’	32
회합 배부 자료집	
[기조 강연 자료]	37
[테마 리포트]	
◇테마1 「관광업 진흥의 정책혁신」	
· 산시성	44
· 간쑤성	46
· 양저우시	49
· 쑤저우시	51
· 서자바주	57
· 말라카주	59
· 경기도	63
· 푸토성	65
· 투아티엔후에성	68
· 후에시	70
· 후쿠시마현	73
· 후쿠이현	75
· 돗토리현	77
· 시마네현	79
· 가가와현	81
· 나라현	84
· 니가타시	87
· 가시하라시	89
· 이카루가초	91
· 아스카무라	94

◇테마2 「산업과 인재의 정책혁신」

• 쑤저우시	98	• 시즈오카현	108
• 충청남도	100	• 와카야마현	110
• 경상북도	104	• 나라현	112
• 후쿠이현	106	• 덴리시	115

◇테마3 「도시와 농촌건설의 정책 혁신」

• 쑤저우시	120	• 고후시	125
• 나라현	122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1. 설립 취지	130
2. 회원 일람	131
3. 개최 실적	132

※직함은 회합 당시의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프로그래밍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개요

【주최:청두시 (공동주최:나라현)】 (장소:중국 쓰촨성 청두시)

2017

● 5/10(수)

9 : 30 - 10 : 30	‘2017중국 청두시 이노베이션 교류회’ 개막식 (청두세기성 국제회의 센터5층 슈이징홀)
11 : 00 - 11 : 40	시찰 ① (청두시 기획관)
12 : 00 - 13 : 30	점심
14 : 00 - 16 : 00	시찰 ② (청두 과학성)
18 : 30 - 20 : 30	환영 리셉션 (샹그릴라 호텔, Shangri-La Hotel)

2017

● 5/11(목)

9 : 00 - 10 : 30	시찰 ③ (청두시 판다 번식 연구 기지)
12 : 00 - 13 : 00	점심
13 : 30 - 17 : 40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청두세기성 국제회의 센터3층, 슈드홀) 메인 테마 : 정책혁신 및 지역의 발전 【개회식】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기조 강연 및 토의 등】 ○ 기조 강연 ○ 토의 ○ 양자 회담 ○ 기자 회견
18 : 00 - 19 : 30	교류 만찬회 ※종료후 청두시 중심지 ‘관자이샹즈’ 에서 시찰 (자유 참가)



인사말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2010년도에 헤이조 천도 1300년을 기념하여 설립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올해로 제 8회를 맞이한다. 나라지방이 일본의 수도였던 약 1300년 전에 당시 동아시아의 글로벌 사회의 도움을 받아 국가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그 역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현재의 동아시아

아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나라현이 발안하여 시작된 시도다.

이 회합은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지역의 실정과 과제를 서로 보고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거듭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행정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하자면 이 회합은 서로가 교사가 되는 지방정부 상호간의 ‘배움의 장’ 이자 ‘교류의 장’ 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국가간의 외교를 보완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회원수는 7개국 70지방정부이며 2016년 제 7회까지 매년 나라현에서 개최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나라현 이외의 지역인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여러분과 더불어 발전해 온 이 회합이 새로운 스테이지에 도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의 회합에서는 ‘정책 혁신 및 지역의 발전’ 을 주요 테마로 하여 각 지방정부의 관심이 높았던 ‘관광진흥정책’ ‘산업·인재고용정책’ ‘도시·농촌 건설정책’ 에 대하여 토의하였는데 과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회합을 성대하게 개최해 주신 청두시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부디 여러분께 결실 많은 회합이 되기를 기원하며 회합 사무국인 나라현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올리는 바이다.



웬민따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이사, 중일우호협회 비서장

제 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환영함과 동시에 청두시와 나라현이 이곳 아름다운 ‘용성’ 청두시에서 동아시아 지역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토론했다는 회합의 개최에 진력해 주셨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2010년 시작된 이래 매년 나라현에서 개최되어 회원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토론의 테마도 시대에 걸맞는 것으로 선정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평화롭고 안정된 동아시아의 발전에 적극 공헌하고 있다.

이번에 아라이 쇼고 지사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 아래 처음으로 나라현 이외의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회합이 되었다. 이것은 이 회합이 가진 혁신성, 관용·협력 정신의 발로이기도 하다.

본 회합은 ‘2017 중국 청두시 이노베이션 교류회’ (‘2017 중국·청두 글로벌 창신(창조와 혁신)·창업(기업) 교역회’)와 연계시켜 개최되어, ‘창신’ 을 강조하고 있다.

‘창신(창조와 혁신)’ 정신은 중국에 있어 민족진보의 근간이며 국가번영과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중국정부는 총력을 다해 ‘대중창업·만중창신’ (대중에 의한 창업·대중에 의한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로운 원동력 아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력 넘치고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 회합을 계기로 지방정부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 각각의 지혜와 과제를 공유·협력하여 윈윈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경제사회의 발전에 더 한층 공헌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계속하여 각국 지방정부간 연락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여러분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의 우호와 협력을 통해 윈윈관계 구축을 지원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합이 성공리에 끝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뤄창

청두시장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2010년도에 설립된 이래 지금은 회원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 청두시는 2015년 10월에 회원이 되어 오늘 아름다운 ‘용성’ 이라 불리는 이곳 청두시에서 제 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을 개최하게 되었다. 멀리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한, 오랜 세월을 걸쳐 동아시아 지방정부간의 우

호 교류에 진력해 주셨던 각계각층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토의와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장을 제공하게 된 것은 청두시에게 있어 선진적 사고와 다른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청두시를 대표하여 회합의 제창자인 나라현과 청두시 개최를 지지해 주신 회원 지방정부 여러분, 그리고 회합을 개최함에 있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청두시는 역사적 풍정과 현대문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이다. 예로부터 ‘천부지국(하늘이 내린 땅)’ 으로 불리며 4500여년에 걸친 문명 역사를 간직함과 동시에, ‘청두’ 라는 명칭은 약 2300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다. 청두시와 동아시아 각국과의 우호교류 역사는 깊어 당나라 때부터 불교를 중심으로 한반도 및 일본과 문화교류를 하였다. 또한, ASEAN 각국과의 경제, 무역 협력관계도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다. 근년 청두시는 개방, 관용, 개척, 창조, 혁신 정신으로 경제와 사회가 균형있게 발전하여 세계 80여 개국의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으며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가고 있다.

협력의 끝에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에 온 힘을 쏟아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 회합을 계기로 회원간의 교류와 협력을 돈독히 하고 더불어 발전해가기 위해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해 가고자 한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Name	Organization
Henan Province	
TONG, Yufei	Deputy Division Chief, Division of Intentional Exchange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Shaanxi Province	
LI, Jun	Secretary General, Shaanxi Provincial People's Association for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
Gansu Province	
KANG, Guanghong	Section Chief, The Foreign Affairs Overseas Chinese Affairs and Hongkong and Macao Affairs Office
Chengdu City	
LUO, Qiang	Mayor
Xi'an City	
ZHANG, Yu	Section Chief, Xi'an Municipal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Yangzhou City	
WU, Jun	Deputy Secretary General
Suzhou City	
ZONG, Wenhua	Deputy Director, Suzhou Municipal Tourism Bureau
Linyi City	
ZHANG, Jian	Director General, Foreign Affairs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of Linyi City

Republic of Indonesia

Name	Organization
Province of West Java	
Iwa Karniwa	Regional Secretary

Malaysia

Name	Organization
Melaka State	
Ismail Bin Othman	Member of Melaka State Legislative Assembly

Republic of Korea

Name	Organization
Gyeonggi-do Province	
LEE, Hueng Soo	Team Leader, Tourism Planning Team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reau
Chungcheongnam-do Province	
KIM, Young Bum	Chief Director, Business Support Division
Gyeongsangbuk-do Province	
JUNG, Jin Woo	Chief Director, International Support Sub-division, Global Trade Division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Name	Organization
Phu Tho Province / Viet Tri City	
HA Ke San	Vice Chairman, Phu Tho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Thua Thien Hue Province	
NGUYEN Van Cao	Chairman, Thua Thien Hue People's Committee
Hue City	
NGUYEN Thi Ai Van	Vice Chairwoman, Hue City People's Council

참가지방정부 단장명부

Japan

Name	Organization
Fukushima Prefecture	
JUNISHO, Ken	Chief Representative Fukushima Center for Industrial Promotion Shanghai office
Fukui Prefecture	
YAMAMOTO, Kiyotaka	Executive Office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Business, Industry and Labor
Shizuoka Prefecture	
AKIOKA, Eiko	Advisor for Commerce
Wakayama Prefecture	
KIJIMA, Shinichi	Director, Industry and Technology Policy Division
Tottori Prefecture	
NOGAWA, Satoshi	Head Administrator
Shimane Prefecture	
ITO, Hiroshi	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y and Labor
Kagawa Prefecture	
OHATA, Yoshihiko	Deputy Director General, Exchange Promotion Division
Nara Prefecture	
ARAI, Shogo	Governor
Niigata City	
FURUKI, Takeyoshi	Vice Mayor
Kofu City	
HIGUCHI, Yuichi	Mayor
Tenri City	
TANAKA, Hiroyuki	Associate Director, Industrial Promotion Division
Kashihara City	
YAMAZAKI, Takahiro	Director General, Promotion Division
Ikaruga Town	
KOJO, Toshishige	Mayor
Asuka Village	
FUKUDA, Kazuyoshi	Vice Mayor
Nara Prefectural Assembly	
KAWAGUCHI, Shoshi	Chairperson
OKUYAMA, Hiroyasu	Chairperson, Committee on General Affairs and Police



개요

Overview

The 8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기 조 강 연

‘정책창출과 지역의 발전’에 대하여

취위이둥

서남재경대학 교수



근년의 세계경제는 침체되어 반 글로벌화가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경제 정세는 복잡화 되어 가고 있다. 만일 각국의 경제가 폐쇄적이고 보호주의적 상황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세계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글로벌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개방적인 원원관계를 구축하여 지역간의 다종다양하고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야 말로, 세계 경제의 침체를 타파하는 좋은 처방전이다. 이번에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선진사례 등을 공유하며 실무적인 교류를 돈독히 함으로써 혁신적인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

청두는 중국 서부의 분지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불리한 내륙도시지만 국가전략에 의한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과 협력을 추진하여 도시의 종합적인 실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착실히 지역의 중심도시에서 국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선진도시와는 아직 격차가 있어 ‘도시사회의 개방 레벨’과 ‘경제의 대외 레벨’을 더욱 향상시켜 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세계의 네트워크와 일체화되는 과정에서 후발우위성과 비교우위성을 살려 경제, 산업, 교육, 인재교류와 같은 면에서 동아시아의 각 대도시와 교류를 돈독히 하여 다방향, 다차원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도시근대화를 가속시키는 과정에 있어 국제경쟁력과 국제영향력을 가진 국제화 도시로서 발전해 가고자 한다.

또한, ‘일대일로’와 ‘장강 경제벨트’에 있어 청두는 전략의 결절점에 위치하며 중국 서부의 대외개방에 있어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청두는 지리적 우위성을 발휘함으로써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서아시아·남아시아·동남아시아 등 폭넓은 지역의 무역통로를 잇는 중심적 역할을 하여 중국 서부의 대외개방을 리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플랫폼으로 하여 내륙부와 연해부·국경 지역과의 협력 개발을 리드하여 국제경제·문화 협력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감으로써 동아시아 각국과 지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가고자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며 지방정부간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력 추진을 향한 정책 책정이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각 회원 지방정부는 각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각각의 발전단계에 맞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번째, 7개국 70회원 지방정부가 하나의 인터넷 상의 그룹을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글로벌·연결·공유’라는 이념에 기초하여 정보와 기술의 공유를 실현시켜, 도시 행정 관리의 준비를 위하여 양호한 정보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해 가고자 한다.

두번째, 회원 지방정부간에 있어 대학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전개와 심화를 제안한다. 젊은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이 분야에 있어서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고등교육을 확대시켜 가고 상호 우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가고자 한다.

세번째, 회원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과학기술기업의 협력지구(산업파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회원 지방정부의 우위성을 살려 협력함으로써 신속한 경제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 회원 지방정부간이 함께 문제해결의 시스템 구축과 그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사회의 경제정보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 가고자 한다.

관광업 진흥의 정책 혁신 —리더십, 계속성, 체계성—



혼포 요시아키

UN 세계관광기구(UNWTO) 주일본사무소 대표,
일본국 초대 관광청장관

일본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2016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수(인바운드)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여 2400만명에 달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인바운드 성장률은 약 130%로, 세계 평균의 5배라는 경이로운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비법은 없고 명확한 비전 아래 확고한 정부 시책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책에 호응하여 자치체와 민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국가 주도형 관광임국 추진 시책이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의 관광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몇가지 소개한다.

먼저 대담하고 야심적인 목표를 설정한 일이다. '내일의 일본을 이끌어 갈 관광비전(2016년 3월)으로 인바운드를 2020년에 4,000만명, 2030년에는 6,000만명으로, 그리고 관광소비액을 15조엔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중에서 4가지를 소개하겠다.

첫번째는 비자발급 요건의 완화다. 10여 년 전에 정부에서 중국인 관광비자 완화를 조정했던 내게 있어 현재의 비자완화의 대담함, 신속함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두번째는 문화재정책을 수동적 보호에서 능동적 보호로 전환한 것이다. 그로 인해 각지에서 잠자고 있던 문화재가 관광에 활용되게 되어 관광의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는 국립공원정책을 보호중심에서 '활용'으로 이전시켜 '내셔널 파크' 화를 지향한 것이다. 그로 인해 보호정책에 의해 지켜져 온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훌륭한 관광명소로 재탄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네번째는 낙후된 규제의 발본적인 재고다. 벤처기업, 신규산업 등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관광정책에 있어 창조와 혁신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일본 정부의 선견지명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계속성(법률·조직·예산 등), 체계성의 3가지 포괄적인 시책이 실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계속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관광임국정책으로의 본격적인 시책은 2003년의 '비지트 재팬 캠페인'의 개시로 거슬러 올라가 2006년의 '관광임국추진기본법' 성립, 2008년의 관광청 설립 등에 의한 관광임국 추진의 국가적 기반이 정비되게 되었다. 그 후 2013년의 '관광임국 추진각료회의' 설치, 2016년의 '내일의 일본을 뒷받침 할 비전' 결정 등 일관된 관광정책이 계속하여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총력을 기울인 시책과 그 결과로서의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시장의 탄생은 지방정부를 자극하여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시책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잇달아 창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라현의 예를 성공사례로서 들고 싶다.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한 나라 지방은 아라이 지사의 혁신적인 관광정책과 도시정책을 통해 교토와 같은 관광지와 차별화된 관광지로서 인지되고 있으며 현재 고급 호텔의 건설과 계획도 추진 중이다.

관광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착실한 추진체제와ダイナ믹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 계속성·체계성이야말로 창조와 혁신을 창출하는 힘의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푸토성의 특징을 살린 관광발전을 위한 연계



하계산

푸토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설립 이래 동아시아의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서로 보고하고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이해를 돈독히 하는 장이 되어 왔다.

푸토성은 베트남 민족의 발상지로 ‘베트남을 알려면 먼저 푸토성부터’ 라고 할 정도다. 또한, 푸토성은 달리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동시에 교통망도 발달되었으며 특히 주민들이 우호적이다. 근년 푸토성의 관광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방문자수는 매년 평균 약 17.5% 증가하여 700만명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문화 등의 ‘차이’와 ‘독자성’은 시대를 불문하고 방문자의 탐구와 체험의욕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다. ‘홍왕을 기리는

신앙’과 전통가요 ‘하 쏘안’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래 견학·관광과 참배하려는 방문자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월 초순에는 중국, 일본, 인도 등 각지의 대표와 필리핀, 그리스, 미국 등 각국의 대사가 홍왕과 연고 깊은 사원을 시찰하고 전통가요 ‘하 쏘안’ 공연을 감상하였다.

나아가 생선과 과일 등 지역의 특산물과 Ao Chau 99 Lagoon, 쑤안손 국립공원의 동굴, 타인투이 온천 등 독특한 관광지도 푸토성이 보유하는 특색의 하나다.

푸토성의 관광발전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서비스 상품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이다. 정책적 지원으로 민간 경제구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기업이 다양한 관광구역과 관광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좋은 환경과 정책을 정비하여 컨설팅과 투자제도 개혁에 착수하였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서 관광산업의 역할은 관광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빈 여러분과 효과적인 연계를 취하고 싶다. 상호 조인과 관광 홍보 등을 통해 협력하면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문화, 역사, 자연경관 등의 매력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의 발전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인재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푸토성의 일부 대학에 관광가이드 양성학과를 설치하였다. 여러분과 관광업 종사자·관광관리간부를 양성하는 전문적인 교육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제를 통해 각지의 관광산업을 부흥시킴으로써 동아시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토 의 테마1 「관광업 진흥의 정책혁신」

발표 지방정부	중 국 : 산시성, 장쑤성 양저우시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한 국 : 경기도 베 트 남 : 투아티엔 후에성 일 본 : 후쿠시마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가가와현, 나라현, 니가타현 니가타시, 나라현 가시하라시, 나라현 이카루가초, 나라현 아스카무라
유 식 자	이와무라 사토시 일본국 전 국토교통성 사무차관 왕 민 청두시관광국 부국장 주 단 청두대학 관광과 행사연구원 원장

테마 리포트에 의거한 발표 개요



중국 · 산시성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산시성은 다양한 관광산업에 관한 구조개혁을 내놓고 성 내의 17개 시, 현, 구의 각 레벨에 맞춰 관광모델 지역을 정비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 전역의 관광자원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관광산업의 규모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성 전체의 경제발전, 나아가 고용의 창출로 이어진다. 또한, 산시성에는 매력적인 농촌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기금 설립을 통해 농촌 관광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 정부가 내놓은 '일대일로' 구상에 의해 실크로드의 기점인 산시성에는 활기가 넘치고 지방정부와의 교류와 연계도 활발해졌다. 또한, 관광에 관한 국제회의와 포럼이 산시성에서 다수 개최되어 UN세계관광기구(UNWTO)와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PATA) 등의 국제기관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부디 꼭 한번 산시성을 방문하셔서 혁신에 기초한 발전을 실감해 주셨으면 한다.



중국 · 양저우시

양저우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인정된 우수관광도시의 하나로 풍부한 관광자원과 양질의 서비스를 무기로 관광산업이 급속히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매스 투어리즘 시대의 도래에 맞춰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어 관광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향상이 필수불가결하다.

양저우시에서는 시민생활을 위한 '1호 문서', 기업을 위한 '2호 문서'를 매년 공포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성심성의껏 관광객을 접대하는 '3호 문서'를 매년 공포하기로 하였다. '3호 문서'는 중요한 정책 혁신의 하나로 올해는 주로 관광객의 만족도와 충실감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가격대비 효과를 높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 2)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객 체재 중의 권리를 지킬 것, 3)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것,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관광산업을 국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까지 세계 각지로부터 2,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책정하였다. 자연자원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나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질도 저하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주에서는 관광자원인 자연과 도시의 개발을 연계시켜 세계 기준의 녹화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 개발로서는 상업 · 공업도시구, 교육 · 창조예술도시구, 문화 · 역사도시구와 같이 각각 독자적인 특색을 지닌 3개의 전략적 도시구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관광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국내외의 경제와 일체적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또한, 도로와 공항, 항구 등의 인프라를 정비함으로써 충실한 육해공 수송수단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자연이 풍부한 서자바주를 조성하기 위해 저수지 등을 정비하여 삼림보호와 수자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알로르가자 지방평의회는 지방기관으로 공공 서비스를 중시하며 또한 알로르가자를 아름답고 선진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기관이다. 알로르가자는 말라카주의 전체적인 발전과 보조를 맞춰 공업, 관광,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발전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현재 본 지역에서는 에코투어가 매우 인기가 있어 파야레바가 투어의 중요한 콘텐츠로 되어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에코투어의 중요한 개념은 자연관광의 하나로 그 활동이 환경에 부여하는 손상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고려한 위에 다양한 야외활동을 짜 넣었다. 조류와 해양 · 야생생물의 다양성 모색과 강과 열대우림, 맹그로브와 같은 수생생태계 탐험, 아름다운 경관, 풍부한 지식을 가진 베테랑 지역가이드의 설명 등 매우 흥미롭고 안전한 모험을 손쉽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먹거리도 만끽할 수 있다.

즐겁고 친환경적인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장소다.



한국 · 경기도

경기도는 광역자치체 중에서 국내 관광객수 제 1위인 한편 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률이 비교적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관광객의 만족도와 취향의 변화, 관광객과 도민의 의견 등을 그다지 반영하지 않고 행정 내부에서만 정책을 책정해 온 것이 문제의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현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도민들과 같이 관광정책에 대하여 토론하는 개방형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지의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를 충실화 시키기 위해 지방에서 고안한 아이디어로 사업전개를 촉진하고 있다.

도민과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오디션 경쟁(2014년부터 매년 실시)에서 선정된 기초자치체의 사업에는 경기도에서 최고 100억원의 자금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폐쇄된 광산을 도민의 제안으로 예술성과 스토리성을 높이는 개조와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개발을 하여 ‘광명동굴’ 이라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되어 있다.



베트남 • 투아티엔후에성

투아티엔후에성은 자연이 풍부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유적을 보유한 베트남의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오래 전부터 국내외 관광객에게 있어 매력적인 여행의 목적지로 되어 있다. 교통편이 편리하고 국제공항도 있으며 호텔과 음식, 기념품 등 관광 인프라도 완비되어 있다. 또한, 국내외의 도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어 관광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투아티엔후에성은 관광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관광수입 및 관광객수가 현저히 신장되고 있다.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관광총국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달성 가능한 장기 목표를 설정, 인프라 건설과 관광의 밀접한 관계 형성, 다른 지역과의 균형잡힌 투자계획의 책정, 국내외의 기업과 미디어와의 협력 체제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투아티엔후에성은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혁신적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관광을 후예의 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 베트남의 문화 및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일본 • 후쿠시마현

전국적인 인바운드 특수에 비해 후쿠시마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는 동일본 대지진 이래 저조한 추세다. 지진 재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의 후쿠시마현의 정확한 정보가 각국에 전달되지 못한 점, 지진 이후 후쿠시마 공항의 국제 정기노선이 정지·운휴중인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한편, 중점적으로 유치대책을 강구했던 지역(베트남, 태국 등)으로부터의 숙박객수는 착실히 증가하고 있어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인바운드의 회복 경향을 더욱 가속시키기 위해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모션의 전개, 현지 창구 설치에 따른 유객체제의 강화, 광역연계에 따른 주유기획의 추진, SNS나 web 등을 활용한 정보발신력의 강화, 국제정기노선의 운행 재개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후쿠시마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쿠시마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후쿠시마 브랜드의 재생, 구축을 지향한다.



일본 • 후쿠이현

방일 여행의 형태가 단체여행에서 개인여행으로 이행되어 여행객들 자신이 인터넷에서 여행처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배하는 것이 주류가 되어 가고 있다. 후쿠이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적어 해외에서의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후쿠이현 해외 유객 브랜드 ‘ZEN, Alive.Fukui’를 창출하여 홍보하고 있다.

‘ZEN’이라는 개념은 불교의 선종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과의 조화, 마음의 치유, 정적, 전통미, 나아가서는 자기 내면과의 대화의 상징으로서 비즈니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후쿠이현에는 일본 조동종(선종의 일파)의 대본산 에이헤이지 사찰이 있어 사람들의 생활 속에도 ‘ZEN’이 숨쉬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인지도·관심도가 높은 ‘ZEN’을 활용하여 ‘관광자원(관광지, 음식, 전통공예 등)이나 지역사람들과 교류하면서 “ZEN이 숨쉬는 후쿠이”를 체험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해외 여행박람회에서의 출전과 여행사·미디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인터넷 상의 정보제공과 인바운드 추진의 기운 조성, 외국인 영입체제 정비 등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일본 · 돗토리현

돗토리현은 웅대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해진미 등을 살린 돗토리현의 명확한 이미지 형성과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최대급의 해안사구인 ‘돗토리 사구’는 세계 지오파크로 선정되어 있어 보전뿐만 아니라 관광과 교육에의 활용이 중요 안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산악불교의 일대성지인 ‘다이센’은 2018년도에 개산 1300년을 맞이하여 이를 계기로 관광지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이센은 일본의 국립공원이자 일본 유산으로도 선정되어 있다. 또한, 아오야마 고쇼 씨의 ‘명탐정 코난’과 미즈키 시게루 씨의 ‘게게게의 기타로’ 등 돗토리현 출신 만화가의 만화 콘텐츠는 모두 돗토리의 특색을 살린 것으로 돗토리현을 ‘만화왕국’으로 세계에 알림으로써 만화 애니메이션 투어리즘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꾸준히 개발하고 특색있는 투어리즘의 조성, 감동적인 환대, 인재의 육성 등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지 “돗토리”의 형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 시마네현

시마네현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문화가 현재도 남아 있으며 이러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천지신명의 나라 시마네프로젝트’를 발족시켜 관광진흥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젊은 경영인들이 주체가 된 ‘인연맺어주기’에 착목한 관광진흥 활동에 호응하는 형태로 신화를 의제로 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신화와 인연 맺어주기를 일본 전국에 주지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젊은 여성객들이 증가하여 2012년에는 연간 348만명이었던 이즈모타이샤의 방문객수가 이듬해에는 804만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일본 전국에서는 현재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외국인 관광객수가 적은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관광면에서의 광역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인접한 돗토리현과 민간기업과 더불어 광역 DMO ‘산인 인바운드 기구’를 설립하였다. 돗토리현에서 야마구치현 하기시까지를 ‘인연의 길~산인~’으로 정하고 해외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영입환경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 · 가가와현

국내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가와현의 인구도 1990년의 103만명에서 현재는 97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에 의한 교류인구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와 관계자치단체, 관광업자 등과 연계하여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가가와현에는 사누키 우동을 비롯한 식문화와 리츠린 공원, 고토히라와 같은 전통적인 관광지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나 관광진흥에 있어서의 지역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광역관광의 추진과 체재시간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①체재교류형 관광의 추진과 세토나이 국제예술제 개최에 따른 ‘가가와 세토우치 아트’의 브랜드화, ②관광객 수용체제의 정비, ③전략적인 관광 프로모션, ④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의 충실·강화, ⑤MICE유치의 추진, ⑥크루즈선의 유치에 힘써 현외 관광객 수가 3년 연속으로 900만명을 넘는 등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 나라현

동아시아의 관광자원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며 그것을 살리는 형태로 국경을 초월한 관광진흥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광진흥에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공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나라현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자랑하나 지역의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관광경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과제가 남는다. 주유체재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으로서 나라에서 밖에 체험할 수 없는 패키지 상품 구성과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비수기 대책으로서 행정이 솔선하여 관광객 유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관광지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입소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먹거리’ ‘숙박’ ‘기념품’의 각 분야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불만의 수집분석 및 과제해결을 위한 검토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유치활동을 통해 국제 수준의 호텔이 나라현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호텔 업계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나라현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주유할 수 있도록 안내환경을 정비하여 안내력, 설명력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일본 · 니가타시

니가타시는 동해에 면한 인구 약 80만명의 정령지정도시로 국제공항과 신칸센 등을 보유하는 동아시아의 국제 거점도시다.

관광정책면에서는 ‘먹거리’를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배우고 식문화로 지역의 매력을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형태인 ‘가스트로노미(정통미식) 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다. 의욕적인 생산자와 요리사를 잇는 ‘피스 키친 니가타 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먹거리와 농업과 같이 지역자원을 연계시켜 현 내외로부터의 소비자들에게 총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또한, 1층에 키친, 2층에는 전망좋은 좌석을 완비한 일본 최초의 ‘레스토랑 버스’도 운행하고 있어 전원풍경과 주조장을 돌 수 있는데 그 루트에는 전체적으로 스토리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쿄 2020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를 앞두고 수도권에서는 스포츠 관전을, 니가타에서는 투어리즘을 즐길 수 있는 ‘니가타 플러스 도쿄’의 확립을 지향하는 등 다른 도시와의 연계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 가시하라시

가시하라시는 초대 천황인 진무천황이 즉위하고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서기 694년에는 당시 중국의 도읍을 참고로 조영된 일본 최초의 도성 ‘후지와라교’가 자리했던 곳이기도 하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일본을 ‘닛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서기 702년에 후지와라교를 출발한 견당사이며 가시하라시는 ‘닛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어 교토, 오사카를 방문하는 사람은 약 2,000만 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 현의 북부인 나라시에는 주로 당일치기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한편, 현 중남부로 여행객들은 드물다. 특히 일본에 방문객수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유학생과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인을 중심으로 약 85,000명이 가맹해 있는 ‘재일중화권’이라는 재일중국인 교류단체를 겨냥한 가시하라시 체험 투어를 실시하여 입소문과 SNS를 통한 가시하라시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 이카루가초

나라현은 수학여행객들의 숙박이 많은데 도다이지와 고후쿠지 등의 사찰과 아울러 이카루가초에 있는 호류지도 방문한다. 이카루가초에서는 수학여행으로 한번은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다시 방문하게 할 수 있을까에 시점을 두고 마을을 부흥시키고 있다.

2014년부터 호류지 주변의 중점구역에서 역사적 마을풍경과 조화를 이룬 건물과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의 활기를 창출하여 관광진흥에 힘쓰고 있다. 나라현은 호텔이 적기 때문에 이카루가초에서도 호류지 앞에 숙박업체를 개업할 예정이며 호류지 산책과 아울러 아스카무라 등 현 내의 다른 지역에도 방문하는 분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번 문외불출 주구지 사찰의 보살반가상의 실물전시를 처음으로 니가타시에서 실시하였는데 1주일에 13만명이나 방문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한국의 보살반가상과 나란히 전시하여 큰 호평을 얻었다. 불상과 이카루가초를 어떠한 형태로 링크시켜 갈지, 또 다양한 연령층에게 어떻게 이카루가초의 매력을 전해가야 할지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나라현에의 집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일본 · 아스카무라

아스카무라는 백제문화 등을 기원으로 하는 아스카 문화가 꽃피웠던 지역이며 달력과 화폐, 호적제도 등의 발상지로 여겨져 법령국가로서의 일본이 탄생한 곳이다. ‘일본의 고향’ 이라고도 불려 현재도 이시부타이 고분 등 수많은 역사적 사적과 더불어 일본의 원풍경이 남아있다.

아스카무라에서는 독창적인 요리와 체험, 숙박 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재형 관광지 ‘아스카 마루고토(통째로) 박물관’의 구축을 목표로 마을 전체를 지붕없는 뮤지엄으로 생각하여 주민들이 긍지를 갖고 생활하면서 환경·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숙박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어 관광을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으로 확립시켜 가고자 한다.

또한,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비와 프로모션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팸플릿과 웹 정보를 계속하여 다언어로 제공하는 외에 주유 환경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접대환경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인접한 자치체와 광역행정사무조합을 조직하여 지역부흥을 위한 포괄적인 연계를 지향하고 있다.



테마 리포트의 개요

중국 · 간쑤성

간쑤성에서는 관광산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작년의 관광객수는 총 1.9억 명, 여행수입도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관련 성·시와 연계하여 자원집약을 추진하고 실크로드 여행시장의 개발과 대형 관광지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황하삼협, 장액단하, 둔황아단, 등 3대 관광지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다. ‘둔황행 실크로드 국제관광절’은 실크로드 연선 국가들과 지역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플랫폼이 되어 간쑤성의 브랜드화와 국제화에 공헌하였다. 또한, 실크로드 연선의 성·시 등과 창설된 실크로드 관광연맹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해외의 주요 마켓에 관광대리점을 설립하는 등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 관광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여 ‘여행+스포츠’ 분야에서는 란저우 국제 마라톤 대회를 자력이동형 관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로 만들었다. 또한, 1)란저우 공항의 아시아 주요도시 등과의 취항노선의 충실, 2)브랜드 여행열차의 개통, 3)하이웨이 호텔의 정비 등을 통해 관광 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 쑤저우시

가난한 농촌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농촌관광 산업에는 농촌의 빈곤구제라는 새로운 역할이 있다. 훌륭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쑤저우시에서는 시내의 빈곤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기획의 입안과 인프라 건설, 자금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안후이성과 연계하여 명확한 전체구상을 세워 각 현·구에서도 현 차원에서의 기획을 작성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지구의 창설, 레저농원과 농가 레스토랑 등 농촌의 매력을 별점으로 평가하는 ‘농가락’의 추진, 관광행사 개최와 같은 다원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외에 국가 재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정비, 위챗(WeChat) 등의 최신 미디어와 홍보활동을 통한 정보제공, 관광기업 주최 빈곤부조활동의 추진 등을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앞으로는 특색있는 관광도시와 관광마을의 추진, ‘농가락’의 확대에 따른 농촌관광의 브랜드화 촉진, 농촌관광의 경영관리 방법의 재고, 인프라 건설 등을 추진하여 농촌관광의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소강사회(어느 정도 여유있는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고자 한다.

베트남 · 푸토성

푸토성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푸토성 봄 노래’, ‘푸토성 흥왕 제사’ 등 수많은 유형·무형 문화유산이 있다. 교통편도 좋고 관광지로서 발전하기 위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른 성과 해외 도시와의 협력관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5년간 푸토성은 투자수속의 쇄신과 인재교육의 질적개선, 관광정보의 웹 사이트 공개 등을 통해 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국가의 안전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실시해 왔다.

한편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가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투자가 적고 홍보도 효과적이지 못해 성이 가진 잠재가능성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까지의 목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유효활용 할 수 있도록 그 잠재적인 매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푸토성 흥왕 사원 역사유적의 국가관광지 등록을 실현시켜 푸토성의 주요 관광지화를 촉진한다.

베트남 · 후에시

후에시는 베트남 중부에 위치하고 문화유산이 많으며 축제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이며 인프라도 발달되어 있어 관광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여정과 목적지를 관광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제공한다’는 발상에서 ‘관광객의 진정한 니즈를 발견한다’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후에시는 사회경제 정책과도 보조를 맞춰 ‘새로운 관광도시 모델건설’이라는 개념 아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투자의 유치, 인재·기능개발, 아시아와 인근 시장의 동향조사 등을 전략적으로 실시하여 베트남의 문화도시를 지향해 간다.

또한,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투자·관광 세미나 등의 개최, 관광지 브랜드의 형성, 국제협력의 확대 등을 실시해 갈 것이다.

유식자 의견



이와무라 사토시

일본국 전 국토교통성 사무차관

오늘 이곳 청두시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레벨이 한단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참가한 여러분들의 토의 내용을 듣으며 각 지방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을 지역간에 공유하고자 하는 강한 열의가 느껴졌다.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해 가는 게 좋을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하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각자 활동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시행해야 할 문제인지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관광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단체여행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수많은 개인 여행객들이 방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 여행객은 다양한 곤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고 싶은 곳까지 차표 구입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공항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개인 여행을 둘러싼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상하이 등의 사례를 참고로 구체적인 대책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관광업자들은 관광 교통루트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구체적인 교통루트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항에 도착한 관광객이 실제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2차 교통안내와 그 정비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시야로 고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혜를 짜 내어 문제 하나하나를 더불어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각 지역이 가진 각각의 플랜과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할 것이다.



왕 민

청두시관광국 부국장

청두시는 2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세계유산인 도강언과 청성산, 중국의 국보인 자이언트 판다의 서식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국 문화의 대표격인 무후사, 두보초당, 금사유적 등 43여 곳의 4A급 이상의 문화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청두시는 UN 세계관광기구(UNWTO)와 중국 국가여행국으로부터 중국 최고의 관광도시에 공동으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에서도 '미식(美食)의 도시'로 선정되었다. 청두시는 역사와 근대의 상승효과를 통해 매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고대와 현대문명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지역이다.

2017년에 청두시는 National Geographic Traveler지에 의해 세계의 필견 관광목적지 21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청두시의 역사유적, 요리, 시민의 생활상은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기고 맛보는 등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청두시는 인간본위라는 이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관광자원의 창조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첫번째로 관광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의 정비다. 기획, 개발, 산업의 발전, 농촌관광 및 서비스의 보장과 법률 책임 등 49개 분야로 구성되는 청두시 관광업 촉진조례를 책정하였다. 이 조례는 세계 레벨, 국가급 관광 브랜드 창설과 농촌 관광 모델의 전환 및 레벨 업, 관광소비의 촉진, 관광 시장의 신용 시스템 구축 강화 등에 대한 20조항의 정책 조치, 토지의 공급과 금융지원 등에 관한 시도도 포함되어 관광지의 건설에 크게 공헌하였다.

두번째는 청두시 전반에 걸친 관광진흥이다. 도강언시를 비롯하여 복수의 지역이 적극적으로 청두시의 관광 모델지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 모델 지역에서는 지역 전체를 종합적인 사고 하에 다양한 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되고 각 업종들이 연계적 마케팅을 실시하여 관광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그 효과는 지역전체에 미치고 있다.

세번째는 농촌관광에 있어서의 체계 구축이다. 청두시의 농촌관광은 30년의 역사가 있고 다양한 관광체험이 가능한 농촌관광 4.0 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네번째는 농촌관광 경영에 있어서의 모델 구축이다. 농촌관광에 있어서 경영자의 의식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산업 관계자를 초빙하여 경영에 대하여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은 끝이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혁과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에 자랑할 만한 관광도시를 건설해 나가고자 한다.



주 단

청두대학 관광과 행사연구원 원장

각 지방정부의 발표의 공통점은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대한으로 지역자원과 특색을 살림으로써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카루가초는 풍요로운 역사적, 문화적 자원과 자연환경이 일체가 된 지역 풍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라현은 축제와 행사를 통한 관광진흥, 푸토성은 행정관리 사업의 개혁에 따른 투자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청두시는 제도, 조직 및 관광 서비스 등을 혁신함으로써 세계에 자랑할 만한 관광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실천은 배울 점이 많아 매우 참고가 되었다.

관광정책의 창조·혁신에 따른 동아시아의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첫번째는 관광관련 협력체제의 혁신이다. 동아시아 지역 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풍요로운 자원과 지리적 우위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광루트를 상호 홍보함으로써 동아시아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관광지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관광관련 산업의 혁신이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개인소비와 고령자 복지, 레저, 생활수준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관광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관광관련 토지이용정책의 혁신이다. 아까 한국 경기도의 발표에서 폐지된 광산을 관광지로 재이용한 시책은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이용되지 않는 토지와 외딴섬 등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관광에 있어 보다 많은 지속발전 가능한 공간만들기와 패턴 조성이 가능해진다.

네번째는 관광관련 소비 매커니즘의 혁신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관광의 우위성을 탐구함으로써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를 발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동아시아의 국가 및 지역 간의 긴밀히 연계된 관광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토 의 테마2 「산업과 인재의 정책혁신」

발표 지방정부	한 일 국 : 충청남도, 경상북도 본 : 후쿠이현, 시즈오카현, 와카야마현, 나라현, 나라현 덴리시
유 식 자	주 쇼닝 전자과학기술대학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테마 리포트에 의거한 발표 개요



한국 ·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공업, 철강 등의 특수산업이 충청남도의 주요 산업인데 기업간 연계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전략으로서 산·학·연·관과의 연계를 통한 1)경제인 학교의 운영, 2)전략적 산업을 육성하는 지적산업 네트워크의 운영 3)수출기업가를 위한 학급설치와 운영 4)기업의 기술적 과제를 논의하는 원탁회의의 개최 5)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산·학·연·관 네트워크 회의의 개최와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학·연·관에 관련된 교류와 정보공유를 돈독히 할 기회를 창출하였다. 앞으로는 기업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대하여 토론헬기 위해 행정 주도가 아니라 지역의 니즈에 맞는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과 대학을 연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 경상북도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함으로써 실업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호, 보육 등 시민과 직접 관계있는 이른바 '사회 서비스' 의 결여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새로이 대두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주도 하에 '고용창출' 과 '사회 서비스의 확대' 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사회적 기업에서는 전 종업원의 62%를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 에서 고용하고 약 80만 명의 '사회적 약자층' 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젊은 종업원(16~34세)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당기이익을 계상하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자립적인 우수한 업적을 내는 많은 기업이 나타나 지역 혁신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 후쿠이현

후쿠이현에서는 국내 경제의 축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인적교류의 활성화, 지역내 경제의 호순환화, 국내외 수요의 적극적인 획득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번째는 혁신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산학관과 자금이 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에서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기구의 설립 및 운영, 후쿠이의 기술을 살린 섬유와 안경기술의 의료·개호분야에서의 활용, 로봇의 연구개발거점을 정비함으로써 현내 기업의 신규 분야 참입을 지원하고 있다.

두번째는 지역산업과 비즈니스의 지속 및 발전 지원이다. 지역산업(전통 공예품)의 장인기술을 유지, 전승시켜 가기 위해 '후쿠이 물건만들기 캠퍼스'를 활용하여 젊은 장인을 육성하고 있다.

세번째는 현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다. 해외 수요정보의 제공과 특산물전 및 상담회 개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현내 기업과의 매칭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 시즈오카현

다채로운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시즈오카현에서는 지역자원과 산업기반의 특성을 살린 다극적이고 경기변동에 강한 산업구조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시즈오카현 신산업 집적 클러스터'는 산학관 자금의 연계에 의해 의료건강, 식품, 광·전자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리딩산업의 육성·집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과학의 연구, 효과 높은 기능성 식품, 식물섬유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 등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새로운 생산가치를 창출하여 산업을 육성하려면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와 기업을 시즈오카현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그 중요성을 사업 참가자 전원이 인식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시즈오카현에서는 연구 컨셉트의 전개·선전,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이념을 가진 인재를 채용, 대학과의 연계에 의한 새로운 기술의 연구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일본 · 와카야마현

산업구조에 오랜세월 변화가 없고 기초 소재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와카야마현에서는 과제로 되어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의 신규 참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산업을 지정하여 진흥하는 '타겟팅 인더스트리얼 폴리시'를 도입하였다. 로봇과 항공기와 같은 8개 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여 전략적 산업에 참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인재고용면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18년까지 30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8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또한, 와카야마현은 창업률이 전국 최하위로 벤처기업의 창출이 큰 과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출 지원팀'을 발족시켜 벤처기업의 사업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직원 자신의 능력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 30대 직원의 능력 배양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 · 나라현

나라현에서는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현 밖으로 유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나라와 같은 내륙부 도시에서 지역의 산업진흥과 고용확보 문제는 공통의 과제다. 그러나 근년 다양한 분야에서 모듈화, 하이테크화에 따른 제품의 소형화, 고도화가 진척되는 가운데 내륙부에서도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나라현에서는 하이테크화에 적응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IoT, 빅데이터, AI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실증 실험을 실시하는 등 신기술의 구축을 위해 현내 기업에 대한 지원에 착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니치 톱 기업도 육성해 가고자 한다.

또한, 진학 중시에서 실학 중시의 교육개혁을 하여 진학뿐만이 아니라 ‘장인’으로서 취업하는 길이 열리도록 인턴십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진척되는 가운데 여성과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재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잡힌 매력적이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일자리 형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일본 · 덴리시

덴리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취업형태인 텔레워크를 다른 시정촌에 앞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작년에 텔레워크 센터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통근 부담의 경감과 생활효율의 향상, 신규 고용의 창출에 따른 젊은 세대의 시외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텔레워크 기능을 가진 공공시설을 정비하였다.

동 센터는 상점가의 중심지에 있으며 교류 살롱 등의 기능을 가진 ‘산업진흥관’이 병설되어 있다. 상공관계자와 주민, 학생, 관광객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역앞에서부터 활기를 창출하는 다목적 스테이션으로서 ‘개방된 공공시설’을 지향하고 있다.

활용실적으로서는 출산으로 이직을 생각하던 여성이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사례, 현 외에 근무하던 남성이 부모님의 간병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었던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올해는 여성을 위한 근로지원사업으로서 WEB 디자인과 그래픽 기술의 연수회를 실시하는 등 인재육성, 취업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테마 리포트의 개요

중국 · 쑤저우시

쑤저우시는 2014년부터 인재의 도입·육성 사업을 실시해 왔다.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신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집적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급여우대와 주택보조 등 우대정책의 제정, 대학과 연계한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노베이션 등 레벨에 맞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우수한 인재가 산업의 합리화와 기술 향상을 견인해 가는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 기관과 쑤저우시에서의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인재 서비스의 합리화와 우수한 인재의 정착, 육성 방책으로는 인재중개제도의 정비와 쑤저우시의 인재정책 실행의 장이 되는 중점민영기업의 육성, 주택과 의료 등에서 우수한 인재를 우대하는 ‘인재 그린카드’의 발급 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인재정책의 혁신을 추진하여 우수한 인재의 집적을 가속화시켜 갈 것이다.

유식자 의견



주 쇼닝

전자과학기술대학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산학연관 네트워크화의 촉진, 혁신형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참가 지방정부의 발표를 듣고 산업진흥과 인재육성 등에 대한 훌륭한 아이디어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지금은 시행착오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이론적인 연구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혁신적인 정책을 제공해 가야 한다.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 경험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적인 시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3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번째는 이론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입안을 하여 ‘산업진흥’과 ‘인재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국의 지방정부와도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 체인지를 해 왔으나 각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사회발전을 촉진하여 주민들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산업진흥’과 ‘인재육성’은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지방정부는 이 두가지에 대하여 가장 뛰어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두번째는 각 지방정부가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 이론적인 정책혁신을 하는 것이다. 정책은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책정되는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책정된 것이라 대부분은 과거형 정책이 되어 버린다. 지방정부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을 혁신시켜야 한다.

세번째는 산업과 인재분야에 있어서의 창조·혁신이다. 정책 실천의 입장에서 보면 동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과제가 다수 존재하며 혁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혁신을 하는가 하면 ‘사위일체’ (4가지 방면을 일체화시킨다)로 혁신을 추진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나은 정책을 기획 입안 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 지방정부는 ①많은 정책, ②양질의 정책, ③도시부와 농촌부의 균형잡힌 정책, ④수익자의 니즈를 고려한 정책 등을 혁신하여 제공해야 한다.





토 의 테마3 「도시와 농촌건설의 정책 혁신」

발표 지방정부	일 본 : 나라현, 야마나시현 고후시
유 식 자	세 웬루 사천사범대학 역사와 여행학원 교수

테마 리포트에 의거한 발표 개요



일본 · 나라현

일본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에서는 젊은이가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을 조성해 감에 있어 어떻게 도시를 리뉴얼 해 가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나라현에서는 ‘살아서 좋고, 일해서 좋고, 방문해서 좋다’ 는 도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현과 시정촌이 연계협동하여 도시의 리뉴얼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자원을 살린 관광진흥을 통한 도시 발전, 고령자가 살기 좋은 의료, 복지, 건강증진에 중점을 둔 도시 건설 등을 의제로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초적 자치체인 시정촌에는 수도, 쓰레기 처리 등 생활 인프라의 유지라는 역할이 있는데 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큰 재정부담을 동반한 시설의 노후화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가야할까 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의 재정력도 약해지는 가운데 광역자치체인 현이 시정촌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해 가야할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 고후시

2027년 도쿄 · 아이치현 구간의 개통을 위해 일본의 선진기술을 집약시킨 리니아 중 앙신칸센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간역이 고후시에 설치될 예정이다.

고후시에서는 최첨단 기술인 초전도 자기부상 방식에 의해 고속 주행하여 이른바 시간과 거리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리니어 모터카를 활용한 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후시에서는 2017년 3월에 ‘고후시 리니어 활용기본 구상’ 을 책정하여 리니어를 활용한 도시 활성화의 기본적인 방침과 시책의 방향성을 규정하여, ①이주 · 정주의 촉진 ②국제교류도시의 구축 ③산업진흥의 추진 ④역사가 숨쉬는 도시의 정비 ⑤도시간 연계 추진이라는 5가지 목표를 축으로 ‘15개 도시 활성화 시책’ 을 책정하였다.

앞으로 시민과 협동하여 시책을 전개하여 종합적으로 도시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가고자 한다.

테마 리포트의 개요

중국 · 쑤저우시

신형도시화 건설에 따른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프라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한편 도시 인프라는 거대한 민생 시스템 공사로 투자규모가 크고 자금조달이 어려워 지방정부에 장기간에 걸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난제다.

지금까지 필요한 자금은 재정을 투입하여 조달해 왔으나 거대한 자금수요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쑤저우시에서는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민영자본이 공공시설에의 투자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도시화 건설의 용자 루트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PPP(Public-Private-Partnerships) 모델의 시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PPP는 도시 인프라에 관련한 자금문제 등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업, 금융기관, 지방정부가 각각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사업이다. 쑤저우시의 오수처리장과 서외환로 건설사업은 PPP모델을 활용한 성공사례 중 하나다.

유식자 의견



세 웬루
사천사범대학 역사와 여행학원 교수

나라현과 고후시의 발표를 듣고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혁신은 어떤 분야가 돌파구가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후시는 리니어 사업에 의해서, 그리고 나라현은 고령자 대책에 의해서 각각 경제, 사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청두시 또는 동아시아 각국의 회원 지방정부에게도 매우 참고가 되는 사례다.

우리 측에서는 현재 중국의 도시와 농촌 건설의 정책 혁신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먼저 도시와 농촌 건설의 문제점으로서 ①정부가 추진함으로써 속도 중심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②대량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도시주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도시화의 신속한 진행에 따라 농촌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 ④도시계획이 합리적이지 않고 대도시가 거대화하기만 하다는 점, ⑤도시개발의 면적이 적어져 도시자원과 인구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점, ⑥도시 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이 심각하다는 점, ⑦도시의 특징과 개성이 없고 자연, 역사, 문화유산의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 ⑧체제와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도시와 농촌간의 벽을 허물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에 어떠한 혁신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①농촌과 도심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굴하여 집약적이고 경제적으로 토지를 활용하여 도시의 과잉확대, 무질서한 발전을 방지할 것, ②생태문명(환경보호)을 신형도시화 사업에 도입하여 도시거주환경을 개선·쾌적화할 것, ③역사, 지역문화의 전승에 힘을 쏟아 도시의 매력과 특성 및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것, ④도시부의 산업과 문화를 농촌으로 이전시켜 특색있는 농촌을 적극적으로 건설할 것, ⑤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농촌의 호적을 유지하면서 거주증(주민증) 제도를 실시할 것, ⑥도시계획과 도시건설을 레벨업시킬 것, ⑦중소도시와 소규모 도시·농촌의 인프라 설비를 강화시킬 것, 등을 유효한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2017 중국 청두시 이노베이션 교류회’ 개막식



환영 리셉션



기념 촬영



시찰 I (청두시 기획관)



시찰 II (청두 과학성)



시찰 III (청두시 판다 번식 연구 기지)



교류 만찬회



‘청두시장 · 나라현 지사’ 양자 회담



패널 전시



나라현 지사 단독 인터뷰





분과회

Session Meeting

The 8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분과회 보고

‘육아 분과회’

덴리시 건강복지부

2017년 10월 31일에 덴리시에서 주쿄대학 현대사회학부 마쓰다 시게키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3현 7시정촌이 참가한 가운데 ‘육아와 마을 만들기’를 테마로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육아 분과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덴리시 산업진흥관에서 ‘덴리시 육아세대 스코야카 지원센터 하구~루’의 활동에 대하여 사례발표가 있었다. 동 시설은 임신기에서 출산, 취학에 이르기까지의 육아에 대하여 단절되지 않는 일관된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 3월에 오픈하였다. 시설 내에서는 ‘육아 콘세르쥬’ (보건사)와 ‘두라’ (선배 엄마)가 육아에 불안을 가진 여성들의 상담에 응하거나 임신기~산후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어 엄마와 아기들이 모일 수 있는 살롱 공간과 시청 이용자들을 위한 탁아룸이 설치되어 있다. 사례발표에서는 활동 내용의 영상을 모니터에 비추며 소개하였다.

또한, 2017년 4월에 JR 덴리역앞에 오픈한 ‘덴리역앞 광장 코후훈(CoFuFun)’ (육아세대가 모일 수 있는 복합시설)에서 시설의 개요설명을 들은 후 거대 트럼폴린, 특수한 그네 등의 놀이기구, 이용자의 모습 등을 시찰하였다.

그 후에 ‘하구~루’의 현지시찰, 참가지방정부에 의한 사례발표 및 의견교환회를 가졌다.

사례 발표에서는 3째 아이의 보육료 무료화 ‘후쿠이 3자녀 응원 사업’ (후쿠이현), 육아 가정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수유장소 등의 설비가 갖춰진 시설을 인정·공표하는 ‘가가와 어린이역’과 18세 미만의 어린이 3명 이상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산산 패스포트’ (가가와현) 등 앞으로 육아지원에 참고가 될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강사의 도입 강의 ‘지방자치체의 저출산 대책이 출생률 회복에 부여하는 효과’에서 ‘출생률 회복을 위해서는 육아환경의 정비가 필요한데 하나의 사업에 특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저출산 대책 사업을 폭넓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 그리고 ‘지역의 산업진흥’과 ‘육아지원대책’을 양 축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이다.’라는 조언이 있었다.

의견교환회에서는 참가지방정부의 육아지원 활동 내용과 교육위원회와의 연계에 관한 문제점, 인구 규모가 적은 자치체에서의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강사로부터 ‘코후훈(CoFuFun)과 ‘하구~루’가 육아지원 외에 지역에 인적 흐름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겨냥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 출생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공업의 진흥)과 양질의 고용의 장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자치체의 산업을 강화·유지하기 위해서는 현과 시정촌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단절되지 않는 일관된 육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국 간의 연계와 자치체 간의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는 유치원 활용과 육아 휴업기간을 연장시키도록 기업측에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기아동 대책의 하나' 라고 총괄하였다.

개최보고

- 일 시 2017년 10월 31일(화) 10시~16시 40분
- 주 최 덴리시(공동주최 나라현)
- 장 소 덴리시(산업진흥관, 덴리시청 등)
- 테 마 '육아와 마을 만들기'
- 강 사 마쓰다 시게키 주쿄대학 현대사회학부 교수
- 참가자 후쿠이현, 가가와현, 나라현, 나라시, 덴리시, 가시하라시, 고세시, 이카루가초, 아스카무라, 고료초



개회 및 사례 발표



코후훈(CoFuFun) 시찰



하구~루 시찰



의견 교환회

